

2024. 12. 30(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9일 오후 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안용민	재난정신건강위원장	석정호	학회사무실 02)537-6171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	최윤경	취재문의	이다영 간사	전화 취재문의 (본 첨부파일에서 삭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성명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회장 최윤경)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무렵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충격과 관련하여 참사의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및 생존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가슴 아픈 소식을 마주하게 된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관련 기관은 생존자 구조, 사망자 수색과 신원확인 등의 전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과 함께 희생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 재난 참사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사고 수습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는 대중들의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고통받는 모든 분과 관련자들이 경험하게 될 트라우마에 대처하고 회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드립니다.

1)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상실에 직면한 생존자와 유가족은 불안과 공포, 정신적 혼란, 슬픔, 무력감, 분노, 죄책감, 수면 문제와 신체 증상 등 다양한 트라우마와 애도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재난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대처(첨부 2, 3)와 더불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재난 회복 지원 그룹과 연결되는 것도 좋습니다. 고통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즉시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언론과 미디어가 트라우마를 인식해야 합니다.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켜서는 안됩니다. 뉴스룸은 재난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과 대처를 숙지하도록 하여 취재원, 언론인, 국민을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시기 재난 보도준칙(첨부 4)과 트라우마예방을 위한 재난보도가이드라인(첨부 5)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대중은 사고관련 언론보도는 시간을 정해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시청하시길 권유하며, 자극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생산, 공유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생존자, 유가족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신체적인 회복과 더불어 생존자와 유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 트라우마는 사고 직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존자와 유가족이 적절한 치료와 심리지원을 충분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존자와 유가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 등 소외되는 사람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은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지는 재난 트라우마 회복의 핵심입니다.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평가나 판단, 선부른 조언은 삼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지와 위로가 됩니다. 지역사회, 관계기관, 전문가, 언론,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재난의 수습과 복구, 재난 경험자의 회복을 위한 역할에 충실히하며 생존자와 유가족을 혐오와 비난, 2차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생존자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참사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을 숨기고 혼자 참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트라우마와 재난을 겪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첨부자료

- 재난정신건강지원의 대상자 및 트라우마에 노출된 이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출처 : 한국재난정신건강지원_가이드라인 (v1.5)

- 안정화기법,

출처: 재난 정신건강지원 정보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 연구(보건복지부 정신 건강기술개발사업)

- 건강한 애도관련자료,

출처: 국가트라우마센터 애도상담프로그램 워크북

- 재난보도준칙,

출처 : 한국기자협회

-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출처 : 국가트라우마센터